■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01-535.
http://doi.org/10.17948/kcs.2022..97.501

1980-2010년대 판소리 세계화의 전개 과정과 향후 과제 고찰*

송소라(宋소라)**

목 차

1. 들어가며
2. 1980-2010년대 판소리 세계화의 전개 과정
3. 판소리 세계화의 향후 과제 제언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80-2010년대 판소리 세계화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판소리 세계화의 움직임을 가져온 주요 사건 혹은 계기로 1990년대 후반의 IMF가 가져온 경제 위기, 2003년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언급되곤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좀 더 이른 시기부터 판소리 세계화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지난시기의 신문자료를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판소리 세계화의 흐름을 논의하였다.

본고는 1980년대 있었던 '88서울올림픽'이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발하였다고 보고, 이 시기 판소리 역시 전통문화의 자장 아래에서 세계화의 필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8232)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성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기조로 인해 사회 전 분야에서 세계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판소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후, 21세기에는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2003년)에 따라 '판소리' 자체에 중심을 둔 세계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과제가 추진되었다.

본고는 끝으로 판소리가 세계화의 길을 간 일련의 과정을 통해 향후 판소리 세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두 가지로 제언하였다. 첫째는 미디어를 통한 판소리 홍보 및 공연 기회의 확장과 판소리 콘텐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판소리 창자들의 창의적 기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및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주제어: 판소리, 세계화, 88서울올림픽, 94 국악의 해, 판소리 사설 번역, 전주세계소리축제, 창극,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이날치 밴드.

1. 들어가며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자국의 홍보 영상으로 제작한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와 현대무용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선보인 뮤직비디오 형식의 'Feel the Rhythm of KOREA'(2020)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전 세계인의 공통 채널인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첫 게시된 지 4개월 만에 약 6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달성하였다.[1]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흥미롭게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리듬과 안무, 그리고 의상과 공간을 선보인 이 영상은 판소리를 위시한 전통의 세계화를 다시 한번 고민케 하였다.

1) 정가영, 「'조선 힙스터'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 시작으로 훨훨 날았다」, 『스포츠월드』, 2021.9.8. 〈이날치밴드〉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져서 관련 연구가 여럿 산출되었다. 임형택, 「'이날치' 수궁가와 문화콘텐츠 이상의 문학적 가치」, 『인문콘텐츠』 60, 인문콘텐츠학회, 2021, 109-132면; 「'이날치'의 고전 현재화와 그 참여문화의 스토리텔링」, 『온지논총』 68, 온지학회, 2021, 269-303면; 이동연, 「예술한류의 형성과 문화정체성」,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53-74면; 이명현, 「판소리의 탈맥락화와 문화혼종: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1, 159-184면; 김영주, 「〈이날치 밴드 수궁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예술연구』 33,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235-255면 등이 그 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을 출발로 삼아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판소리 세계화의 전개 과정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될 '세계화'는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 오명호[2]는 세계화를 정의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세계화란 대체로 사회관계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계성'이 빠르고 강도 있게 확산됨으로써 세계가 하나의 '장소'로 또는 '지구적 단위'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은 20세기 후반이라는 상황 속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간 국제사회를 특징짓던 민족국가의 '국경'이나 '영토' 개념이 희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택수[3] 역시 "세계화란 개별 근대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호교류와 상호연계성이 빠르게 강화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로 볼 때 세계화의 의미에 '초국가', '탈경계', '상호의존 및 연계' 등의 키워드가 놓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판소리의 세계화'를 문화의 영역에서 판소리가 탈국가, 탈경계, 그리고 상호의존과 연계성을 토대로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일찍이 김익두[4]가 판소리의 세계화로 정의한 "전 세계의 문화적 인간들이 판소리를 자기 문화적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체질화하게 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세계인들의 삶에 필수적 요소로 판소리가 자리해야 한다는 당위보다는 자연스럽게 판소리의 음악을 즐기고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가 말하는 '세계화되는 판소리'는 전통판소리에 한정되지 않으며, 판소리 뮤지컬, 판소리극, 밴드 음악 등과 결합한 현대 판소리 모두를 포괄한다.

그간 '판소리의 세계화'와 관련된 학계의 관심은 꾸준히 있었다. 가장 먼저 판소리의 세계화를 말한 김익두[5]는 판소리의 세계화를 전술한 바와 같이 정의하며 이를 위해 ①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 ② 문화정책 전략, ③ 교육

2) 오명호,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환과 미래』, 박영사, 2020, 4면.
3) 현택수, 「문화의 세계화 담론과 문화정체성」, 『문화정책논총』 13,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01, 3면.
4) 김익두, 「판소리 세계화의 기본 전략」,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16면.
5) 김익두, 같은 글.

전략, ④ 공연 전략, ⑤ 연구 전략, ⑥ 문화상품 개발과 문화산업 전략, ⑦ 홍보, 마케팅 전략, ⑧ 정보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정병헌[6]과 최동현[7]은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판소리가 선정된 상황 속에서 유산 등재의 의의를 살피고,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과 세계화의 전략을 위한 각각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제출하였다. 논자들은 앞서 김익두가 제시한 전략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또한, 판소리의 세계화는 판소리 유파의 한 흐름인 '보성소리'와의 적합성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고[8], 이자람, 신국악단 소리아 등의 창작판소리 예술가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9]

더불어 판소리 세계화의 주제 안에서 판소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를 논의한 연구[10], 영어 콘텐츠화의 문제 속에서 판소리의 세계화를 고찰한 연구[11], 판소리의 국가브랜드화 전략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한 연구[12] 등도 제출되었다. 그리고 최근 최혜진[13]은 판소리 세계화의 현주소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피고, 향후 판소리 세계화를 위한 네크워킹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발전시킬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및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6) 정병헌, 「판소리의 세계화와 세계무형문화유산 선정」,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32-52면.
7) 최동현, 「판소리의 세계화에 관하여—가능성을 위한 시론」, 『판소리연구』 26, 판소리학회, 2008, 253-273면.
8) 서종문, 「세계화와 판소리의 대응: 보성소리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1, 판소리학회, 2006, 7-22면.
9) 장윤희, 「창작 판소리의 변화양상과 판소리 세계화의 담론」, 『한국음악연구』 57, 한국음악학회, 2015, 191-216면; 최혜진, 「이자람의 억척가를 통해 본 판소리 세계화」,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0,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5, 291-319면.
10) 양민정, 「한국어 문화교육과 판소리의 세계화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207-228면.
11) 최혜진, 「판소리의 세계화와 영어 콘텐츠화의 문제」, 『공연문화연구』 9, 한국공연문화학회, 2004, 201-221면.
12) 김영만, 「판소리의 국가 문화브랜드화 전략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3,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09, 5-26면.
13) 최혜진, 「판소리 세계화의 현황과 미래 전략」, 『구비문학연구』 62, 한국구비문학회, 2021, 33-76면.

그러나 판소리의 세계화가 어떠한 사회적 흐름과 요구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천들이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관한 정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선행연구에서 판소리 세계화의 출발로 주요하게 다루었던 시기는 '세계화'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90년대 중반[14]이지만, 이에 앞서 1980년대에도 판소리의 세계화, 국제화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와 이를 위한 활동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한 것은 간과되었다.

기실 판소리의 세계화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사회, 유관 단체, 연구자, 연희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느냐에 주목하기보다는 세계화의 당위성 아래 향후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주창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15] 그 과정에 1980년대부터 판소리 세계화를 촉발한 여러 의제, 이에 따라 다방면으로 실천되었던 관련 활동은 주목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과제만을 부여받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 경향이 있었다.[16]

오늘날 이날치 밴드가 보여준 판소리 재창작의 흥미로운 결과물은 우연히 생성된 것도,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다. 판소리는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보존과 보호의 가치 속에서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14) 최혜진은 학문의 전 영역에서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담론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라고 하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국가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담론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최혜진(2021), 앞의 글, 37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앞서 정병헌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정병헌(2004), 앞의 글, 32면].

15) 물론 2010년대 이후 이자람, 이날치 등의 활동 속에서 판소리 세계화의 면모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었다[최혜진(2015), 앞의 글; 장윤희(2015), 앞의 글; 이동연(2021) 등]. 그리고 최근 최혜진(2021), 앞의 글은 현재 판소리 세계화와 관련하여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앞선 시기부터,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예술가의 활동 외에도 판소리 세계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은 다방면으로 있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6) 일례로 최동현은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나 지원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이나 단체도 판소리 경연대회를 만들어 권력이나 행사하려고 할 뿐 세계를 상대로 한 어떤 노력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가끔 판소리의 해외 공연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설의 번역조차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동현(2008), 앞의 글, 254면]라고 하며 판소리를 세계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한없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1980년대부터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을 세계화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꾸준히 있었다고 본다.

예술로 자리를 잡았다. 더불어 현대의 문화 속에서 재창조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며 대중과 소통해 왔다. 세계화와 관련하여서도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전부터 차근차근 관련 활동을 수행해 왔다.

판소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과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과거 어떠한 행적이 있었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방면의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어느 시기에, 무엇을 계기로,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러한 것이 점차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오늘날 판소리의 여러 면모를 만들어 왔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2. 1980-2010년대 판소리 세계화의 전개 과정

1) 1980년대: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가져온 전통문화예술을 향한 세계화의 필요성

판소리의 세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1980년대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다름 아닌 1988년도에 개최되었던 서울올림픽과의 관계 속에서다.

> 88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도 선진권에 돌입할 수 있는 탄탄한 기틀을 다져줄 것 같다. 건국 이래 최대의 경사라고까지 반기고 있는 올림픽 유치로 국민의 사기가 더없이 고양되었고 이같은 국민적 단합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의 향상, 주거환경의 개선, 전통문화의 계발 등이 이루어져 사회구조의 선진체제가 앞당겨 구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 (…)
>
>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예술 분야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도 올림픽 개최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일본, 서독, 멕시코 등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각기 그들 국가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창달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올림픽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발은 물론 예술 각 분야의 활동이 크게 생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전무용, 판소리, 탈춤 같은 전통예술은 올림픽 기간 중 각 공연장에서 외국 손님들을

매혹시키게 될 것이며 토속민속품이나 서예, 동양화 등도 전시를 통해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임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17]

1981년 10월, 88년도의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발표 이후 한국은 교통, 통신, 시민의식, 도시 및 주거환경 등의 여러 측면에서 세계인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보일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해방 이후 침체되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 인식의 재점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가히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판소리를 세계화하고자 한 흐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

① 조선일보의 〈국악대공연〉 프로그램 개최와 '문화재보호협회'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기획

조선일보는 1982년 제1회 〈국악대공연〉을 기획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관련하여 '국제화'를 언급하는데, 이른바 점차로 국제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이 존재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 속에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필요 불가결하다는 당위다. 조선일보는 "고유문화 없는 국제화는 문화적 멸망을 의미한다"[18]고 하며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외래문화와의 절충을 지향하는 문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전통음악을 한데 모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국악대공연〉의 취지가 이런 측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대 전통예술의 실체를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서양음악의 풍랑에서 점차 설 땅을 잃어가는 우리 고유의 음악 유산을 가꾸어 나갈 계기를 마련[19]하자는 의미도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꽤 의미가 있었고, 그 취지로 국제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국제적 관계 속에서 한국문화의 독자성을 확립하고자 한 사회적 의식의 발로였다고 하겠다.

올림픽을 앞두고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보존과 발전에의 지향은 그 어느

17) 李朝淵, 「'88 서울올림픽 (5), "1等國民" 과시」, 『경향신문』, 1981.10.10.
18) 「國際化社會의 國樂 제1회 〈國樂大公演〉의 현대적 의미」, 『조선일보』, 1982.4.9.
19) 「民族의 魂이 노래하고 춤추는 우리가락 큰 잔치 제 1회 國樂大公演 社告」, 『조선일보』, 1982.4.16.

때보다 커졌는데, 문화재보호협회의 노력도 짚어볼 수 있다. 1980년에 발족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20]는 1981년 〈한국의 집〉을 개설한 후, 공예 및 한식 만들기, 전통혼례, 다도, 전통민속예술공연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문화재보호협회 주관의 민속극장에서 국립무용단과 시나위단으로 구성된 공연단이 무용, 가야금병창, 판소리 등 다양한 민속레퍼토리를 가지고 한국의 민속예술을 소개해왔다.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1982년 민속극장을 방문한 총 관람자는 2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2만 명으로 76%를 차지하였다.[21]

당시 칼럼은 문화재보호협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88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재보호협회가 더욱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전개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22]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앞두고 전통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했던 것이다. 실제로 1986년 문화재보호협회는 사업의 범위를 늘린다. 기존 한국의 집, 문화재전수회관, 서울놀이마당의 운영에 머물렀던 사업 범위가 각종 문화유적 관계 서적 및 안내 책자의 발간사업, 외국인을 위한 전통공연기획, 문화재 보호 캠페인 주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확보된 예산 안에서 〈한국의 집〉에 있는 소극장을 객석 180석(종전 100석)에 무대 28평(종전 14평)으로 확장하기도 하였다.[23]

올림픽이 가져온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 나아가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② 신창악 운동 시도 및 창극의 세계화에 관한 관심 대두

1980년대 판소리의 세계화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 작곡가 김동진이 주도한 '신창악(新唱樂)'을 언급할 수 있다. 신창악은 판소리의 정신과 창법의

---

20) 현재 한국문화재단(https://www.chf.or.kr/chf)이다. 1980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1970년대 발족되었던 사단법인 문화재보호협회, 재단법인 무형문화재보호협회, 사단법인 문화재보급협회 등 3개 문화재 단체를 통합, 재정비한 것이다(「이달 定式설립된 문화재 保護協.」, 『경향신문』, 1980.4.1.).

21) 朴大鎭, 「大衆 속에 되살린 傳統文化의 숨결」, 『경향신문』, 1983.4.18.

22) 朴大鎭, 같은 기사, 1983.4.18.

23) 吳重錫, 「「문화재保護協」 사업범위 늘린다」, 『조선일보』. 1986.1.29.

멋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현대에 적응할 수 있게 발전시켜 서양음악 기법과 과학적인 발성법으로 노래할 수 있게 창작된 성악이다.[24] 김동진은 한국적 오페라인 가극 창작, 나아가 국악 연주 효과 및 신창악 연구에 몰두하였고, 그 결실로 1978년 가극 『심청전』을 초연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신창악연구회를 조직해 신창악연구 및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25]

그가 수행한 신창악은 1982년 판소리의 국제화 면모 속에서 평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고파」의 金東振씨를 중심으로 일단의 소장 음악가들이 그동안 열여덟 차례 신창악발표회를 가졌고 지난 주말 서울에서도 선을 보이고 있어, 판소리를 中興시키는 일로서뿐 만이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우리 고유한 음악 재산을 세상에 펼치는 매개수단으로 주의를 끌게 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가락에는 우리 한국인에게 고유한 심정표현의 구조가 있다. 그것이 발굴되고 체계화되고 세련됨으로써 만이 세계 속에 한국음악이 좌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우리의 고유한 문화자질에다 세계적으로 적응할 기능을 접목시키는 일이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조건이며, 그 조건의 음악적 표현으로 신창악 운동을 지켜보고자 한다.[26]

김동진의 연구와 활동은 판소리의 국제화, 우리 음악의 세계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김동진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음악을 세계무대에 내놓기 위해서는 신창악과 같은 재창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소리 〈춘향가〉는 2년 정도 있으면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끝나면 여생도 판소리의 국제화에 바칠 생각이지요."[27]라고 하며 그가 행하는 운동이 판소리의 세계화에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김동진은 1986년 마침내 『김동진 한국정신음악 신창악곡집』을 출판하였고, 판소리의 재창조, 우리 음악의 국제화

24) 김동진은 고유의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국의 정신과 멋이 내포된 음악을 '한국정신음악'이라 명명하였다. 그 가운데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을 '신창악'이라 명했고, 민요를 바탕으로 한 것을 '신민요'라 명명하였다. 김동진, 「한국정신음악 신창악 연구」, 『음악평론』 13, 한국음악평론가협회, 2007, 9면.
25) 신인선, 「한국음악 20세기: 김동진」, 『음악과 민족』 26, 민족음악학회, 2003, 22-23면; 안지영, 「김동진의 신창악 가극 연구—〈심청전〉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6, 27-29면.
26) 「萬物相」, 『조선일보』, 1982.7.3.
27) 「"판소리를 洋樂기법으로 세계무대에" 新唱樂발표회 열여덟번째 연 作曲家 金東振씨」, 『조선일보』, 1982.7.3.

등의 긍정적 반응[28]을 얻으며 당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관심을 둔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논의로 '창극'의 세계화를 들 수 있다.

> (…) 우리의 전통예술을 있는 그대로 세계인들에게 내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을 바탕으로 '국제화' '현대화'하여 세계에 널리 소개될 수 있는 작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
> 그러면 우리 전통 예술 중에서도 어떤 장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연극평론가 李相日씨(성균관대교수)는 『역사가 길고 양식화돼 있는 판소리의 唱劇化나 굿형식의 祭儀的인 총체무대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
> 연극평론가 徐淵昊씨(고려대교수)는 『「프랑스」의 「코메디프랑세즈」가 3백80년, 日本의 「가부키」가 4백년의 역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2백년의 역사를 지닌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肉化시켜 만든 프로그램이 가장 좋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29]

창극을 활용하여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보자는 목소리는 올림픽 이전에도 있었다.[30] 그러나, 이를 판소리 세계화의 해법으로 모색한 흐름은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을 직접 치른 이후였다. 이러한 생각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 열린 '서울올림픽문화예술축전 종합평가 심포지움'(1998년 11월 11, 12일, 문예진흥원 주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 이 심포지엄의 종합토론에서 세계에 내놓을 우리의 간판 예술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창극을 양식화하자는 안이 대두된 것이다.[31] 그리고 이 같은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기대는 이후 창극이 양식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32]

국립창극단은 1962년에 설립된 이후 다양한 시도를 하며 창극 정립을

---

28) 「新唱樂 작곡집 낸 「가고파」의 金東振씨」, 『동아일보』, 1986.6.11.; 이규태, 「이규태 코너 〈신창악〉」, 『조선일보』, 1986.6.22.

29) 宋燦彦, 「文化올림픽 明과 暗 〈4〉 傳統文化의 멋 世界에 자랑」, 『동아일보』, 1988.10.3.

30) 「唱劇은 外來문화의 産物 演劇協 심포지업서 金雨玉 교수 발표」, 『조선일보』, 1980.12.7.; 이성천, 「우리가락 밝은 未來보여줬다. 제2회 國樂대공연을 보고 大衆을 위한 國樂재창조 현대감각 가미해 청중과 일체감 뮤지컬 〈春香傳〉 구성 시도해봄직」, 『조선일보』, 1983.5.10.

31) 鄭重憲, 「"나열식" 自省…전통문화 세계화 모색」, 『조선일보』, 1988.11.15.

32)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창극을 양식화하자'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국립창극단은 판소리를 모태로 창극 정형화를 추진함과 함께 창작창극 개발에도 주력해왔다" [「심청가 唱劇으로 무대 올린다」. 『매일경제』, 1991.3.7.]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서울올림픽문화축전에서 국립극장 산하 단체 공연물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경험"[33]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창극의 양식화를 고민하였다. 더불어 올림픽 이후 동구권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창극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공연되는 기회를 얻었는데,[34] 이러한 경험은 창극을 세계 무대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 주었을 것이다.

1980년대는 서울올림픽은 물론 이에 앞서 있었던 '86년 아시안게임으로 세계인을 의식한 문화행사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사회는 공연예술을 주축으로 한 '문화올림픽'에서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행사를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 실천되어야 할 시책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였다. 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것이다.

2) 1990년대: 정부의 '세계화'의 기조 속 적극적으로 추진된 전통음악 및 판소리의 세계화 움직임

1990년대는 전통음악을 비롯한 '판소리'를 향한 세계화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던 때였다. 이는 '세계화'라고 하는 화두가 본격적인 국가의 의제로 대두되면서 문화예술계 역시도 이의 흐름에 발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무회의를 주재, 세계화, 지방화, 통일대비, 경제안정 등 새 내각이 추진해야 할 4대 국정운영기조를 제시하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내각의 제1과제는 세계화의 본격 추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대한 비전, 분명한 목표, 과감한 실천이 중요하며

33) 金炳在, 「우리 가락·고운 춤 大西洋을 휘돌아」, 『매일경제』, 1989.8.8.
34) 金炳在, 같은 기사, 1989.8.8.; 金慶子, 「公演 단체 海外 나들이 활발」, 『매일경제』, 1989.8.8.; 「공연예술 국제교류 러시」, 『경향신문』, 1989.8.28.

>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세계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35)

'세계화'가 국정 목표로 제시된 것은 1994년 말의 일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아태경제협력제(APEC)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 인사에서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제화, 세계화는 이 시대의 큰 흐름이고, 제도와 규범, 정보와 지식, 기술과 생산성을 세계화 시대에 맞도록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하였다.36) 또한, 1994년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사회 전반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 대담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하며37), '세계화'를 주요 키워드로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는 '세계화'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화'의 용어를 해석하며 이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는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 문화예술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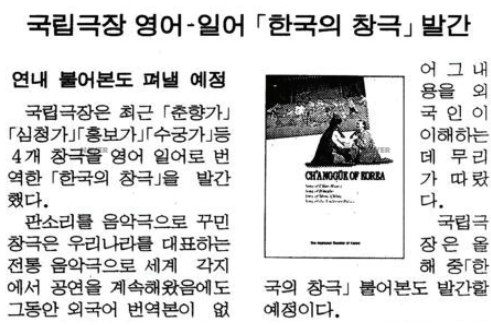
(1) 판소리 외국어 번역의 요구와 시작

국제화의 열풍은 판소리 공연의 외국어 자막 및 창본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간 판소리 무대에 자막을 넣거나 창본을 번역하는 문제는 국악계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물론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에 공연되었던 국립창극단의 〈춘향전〉(9.18-20) 무대에 자막을 넣기도 하고,38) 명창들이 해외 공연을 갈 때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자막으로 넣는 배려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에 관한 정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안숙선 명창은 로스앤젤레스, 영국, 네덜란드, 브뤼셀 등의 해외 공연 경험을 통해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위해선 최소 판소리 다섯 마당만이라도 영어, 불어, 일어 등의 외국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9)

---

35) 金學淳, 「"世界化가 제1과제」, 『경향신문』, 1994.12.25.
36) 「"개혁 世界化 맞춰 계속"」, 『동아일보』, 1993.11.26.
37) 「金대통령 연두회견문」, 『동아일보』, 1994.1.7.
38) 吳重錫, 「唱劇・国樂 한국春香이 「세계의 春香」되다」, 『조선일보』, 1988.8.2.
39) 「문화계 올 화제의 인물 국악 판소리 명창 安淑善씨」, 『동아일보』, 1994.12.7.

이후 판소리 번역은 국립극장에 의해 주도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극장은 판소리 〈심청가〉, 〈춘향가〉의 영어, 일어본 슬라이드를 1994년에 우선 제작하였고, 1995년에는 〈흥보가〉를 제작하였다.[40] 1996년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등 4개 창극을 영어, 일어로 번역한 『한국의 창극』을 발간하였고[41], 연이어 5대 창극의 불어 번역본을 발간하였다.[42]


국립극장 영어-일어 「한국의 창극」 발간

연내 불어본도 펴낼 예정

국립극장은 최근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등 4개 창극을 영어 일어로 번역한 「한국의 창극」을 발간했다.

판소리를 음악극으로 꾸민 창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음악극으로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계속해왔음에도 그동안 외국어 번역본이 없어 그 내용을 외국인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따랐다.

국립극장은 올해 중「한국의 창극」 불어본도 발간할 예정이다.

[그림 1]『동아일보』 1996.1.20. 기사

국립극장이 이와 같은 작업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판소리 완창 무대와 창극 공연에 외국인 관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극장 차원에서라도 영어, 국어 자막을 병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43]

이후 판소리 사설의 번역은 2000년대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의 작업[44],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최동현 교수가 추가로 진행하였다.[45] 2000년대 이후의 작업은 앞선 시기의 것에 비해

40) 「국립극장 판소리 번역 의욕」, 『동아일보』, 1995.1.13.; 「國樂(국악) 세계화 "활발"」, 『매일경제』, 1995.1.20.
41) 「국립극장 영어—일어 「한국의 창극」 발간」, 『동아일보』, 1996.1.20.
42) 「판소리 사설 佛譯 발간」, 『경향신문』, 1996.11.27.; 「5대 창극 프랑스어 번역본 출간」, 『한겨레』, 1996.11.19.; 「「한국의 창극」출간」, 『매일경제』, 1996.11.19. 기사에 따르면 이 번역본은 앞서 발간된 『한국의 창극』에 〈적벽가〉를 추가해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낸 것으로, 번역은 최준호(한예종 연극원 교수)와 프랑스어 번역가 유효숙이 공동으로 맡고, 정병헌(숙명여대 국문과 교수), 파스칼 그로토(승실대 불문학과 교수)가 감수했다.
43) 「창극 첫 영·일 번역본발간/국립극장, 「춘향가」, 「흥보가」 등 수록」, 『한국일보』, 1996.1.11.
44) 이 사업의 공식명칭은 '판소리 사설의 채록 정리 주석 번역 및 실용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이며 2002-2004년에 걸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물로서 『판소리 사설전집 13 Chunhyangga 영역본 춘향가』, 『판소리 사설전집 14 Simcheongga Heungboga 영역본 심청가, 흥보가』, 『판소리 사설전집 15 Sugungga Jeokbyeokga 영역본 수궁가, 적벽가』가 2007년 민속원에서 출판되었다.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최혜진(2004), 앞의 글; 장미영, 「판소리의 현대화를 위한 번역 현황과 방향」, 『비평문학』 36, 한국비평문학회, 2010, 267-288면을 참고할 수 있다.
45)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의 국·영문 사설집과 자막 시디(CD)가 발간 및 제작되었고(이병재, 「전주세계소리축제 '흥보가' 바디별 전집 출간」, 『전북중앙』, 2009.12.17.), 이후 전 바탕의 사설집이 완성되었다(김재수, 「최동현 교수, 판소리 다섯 바탕 영문 자막·책 내」, 「머니투데이』, 2012.2.7.).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정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이후 작업의 경우, 번역 언어가 영어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영어, 일어, 불어 번역을 최초로 시도 및 수행한 국립극장의 상기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94 〈국악의 해〉 선포가 가져온 판소리 대중화의 물결

90년대에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는 1994년을 국악의 해로 선포한 것이다. '국악의 해' 선포 역시도 전통음악의 세계화와도 맞물리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국제화는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고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며, "올 한 해 동안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국악의 대중화와 창조적 발전을 이루고 국악의 원형보존과 재창조에 힘써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46] 전통음악의 보존 및 재창조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그간 꾸준히 있었지만, '세계화'라는 국가 비전이 공론화된 1994년을 바로 '국악의 해'로 선포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94 국악의 해'의 표어 가운데 '우리가락 우리 멋, 세계 속의 우리문화'[47]는 전통음악을 향한 세계화의 요구가 국가적 과제와 매우 긴밀함을 드러낸다.

'국악의 해'와 관련하여 주목하여 볼 점은 세계화의 선결과제로 중요한 국악 대중화의 흐름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의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국악 음반이 이 해에 많이 나왔다. 특히 판소리와 관련하여 유성기 시절 판소리 명창들이 녹음했던 음반의 복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박록주, 김연수, 이일주, 안숙선 등 유명 명창들의 음반 제작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국악의 해」를 맞아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각 음반회사들이 국악음반을 의욕적으로 펴내고 있다. 신나라 레코드사, 서울음반 등은 대중적인 호응을 겨냥한 음반뿐 아니라 유성기시대 명반들을 복각하는 등

46) 「國樂의 해」 선포, 『조선일보』, 1994.1.21.

47) 「94국악의 해 심벌—로고 확정」, 『조선일보』, 1994.1.14.; 「국악의 해 심벌 확정」, 『한겨레』, 1994.1.15. 이외에도 "우리 가락 겨레의 얼", "얼씨구 우리 가락, 좋을시구 우리 문화", "올해는 국악의 해, 신명나는 밝은 사회"도 국악의 해 캐치프레이즈로 정해졌다.

> 자료 복원에도 노력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88년부터 유성기 음반의 복각 작업을 해오고 있는 신나라 레코드사는 「SP시대의 판소리 여류 명창들」 전집,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명인들」 전집, 판소리 눈대목 전집 등 大作들을 잇달아 내고 있다.
>
> 신나라 레코드사는 오는 6월에는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한반도의 아리랑 모음 전집」과 명창 이일주의 판소리 4바탕 전집 음반 등을 펴낼 예정이다. 또 명창 安淑善의 판소리 5바탕 전집, 가야금 명인 이영희, 강문득, 박현숙, 정회천 전집 등도 7월 출시를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 (…)
>
> 지구레코드도 박록주의 판소리 「흥보가」를 비롯해 장학선, 이반도화, 이정렬, 김춘홍 등의 「서도소리 대전집」, 김연수의 판소리 춘향전, 인간문화재 명창들의 남도창 단가집 등을 제작하고 있다.[48]

음악 이외에 국악 관련 서적도 활발하게 나오면서 국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렀다. 이 가운데 판소리와 관련하여 몇몇 책이 특히 인기를 얻었는데, 판소리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명창들의 소리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동편제에서 서편제까지』(오중석, 삼진기획刊, 1994), 『소리꾼들, 그 삶을 찾아서』(박경수, 일월서각刊, 1993)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배우 김명곤이 판소리, 거문고 분야의 인간문화재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예술 인생을 기록한 『恨—김명곤의 광대기행』(산하刊, 1994)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49] 이 해는 특히 국악의 여러 분야 가운데 판소리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93년에 상영되어 폭발적 인기를 얻은 영화 〈서편제〉가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94 국악의 해'는 여러 성과를 내세우며 마무리가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초등학교 및 대학의 국악 교육 개선 본격 추진', '국악 서적, 음반 발간 활발', '국악 보급을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이 있었다. 또한, 95년부터 국립극장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설을 이뤄내기도 하였으며, 강원에서도 국악관현악단 및 도립 국악원의 설립 추진을 이끌었다. '국악박물관의 개관' 역시도 국악의 해가 이룬 중요성과였다.[50]

---

48) 韓惠進, 「국악음반 "大衆 파고들기"」, 『경향신문』, 1994.4.23.
49) 「傳記—入門書 국악 대중화 잇달아 출간」, 『동아일보』, 1994.2.23.
50) 「傳統음악 진흥 "元年'선언 「국악의 해」 성과」, 『매일경제』, 1994.12.12. 국악관현악단의 설립

(3) 서양음악과의 조화, 대중음악과의 적극적인 교류 시도

1990년대 판소리의 세계화를 엿볼 수 있는 흐름으로 판소리에 대중음악, 서양음악을 결합한 여러 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국악을 대중음악, 서양음악과 결합한 시도는 일찍부터 있었다. 한명희・송혜진・윤중강[51]에 따르면 1980년대 국악계의 주요 흐름 가운데 하나가 외국의 기악곡이나 찬송가를 국악기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황병기, 이성천, 전인평 등의 국악 작곡가들은 이 시기에 순수 국악뿐만 아니라 서양의 악곡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작품을 만들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국악 실내악 운동', '국악 가요 운동'이 조금씩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슬기둥과 어울림 등의 실내 악단이 구성되어 이른바 '국악가요'나 '국악 경음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음악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52]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에도 이어지면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국악 실내악, 생활 중심의 국악 관련 곡이 상당수 발표되었다. 국악을 대중가요의 한 장르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많아진 것이다.

> 가요계 일각에서 국악을 새로운 대중가요의 한 장르로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 국악가요는 이름 그대로 국악과 양악을 조화시켜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실험적 장르이다.
>
> 국악가요의 핵심적 요소는 동서양 악기의 융합과 음계의 변화, 국악가요곡에서는 가야금, 아쟁, 징 등 국악기와 전자기타, 신디사이저 등 현대적 서양악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악적인 면에서는 「궁상각치우」, 즉 「도레미솔라」의 5음계 멜로디가 구성되고 반음이 사용되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다. (…) [53]

은 이후 다양한 퓨전 국악, 국악 가요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1) 한명희・송혜진・윤중강, 『우리국악 100년』, 현암사, 2001, 269-279면.

52) 1980-90년대의 신국악, 창작국악, 퓨전국악 등과 관련된 논의로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담론과 월드뮤직화」, 『음악과 문화』 20, 세계음악학회, 2009, 31-34면; 김은정, 「퓨전 國樂의 시대적 樣相과 産業性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7; 손현정, 「한국 대중음악에서 나타나는 전통음악의 단계별 수용과정 연구-1970, 8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5; 김보람, 「1980년대 국악가요의 탄생과 경향 분석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3) 朴聖洙, 「접목 국악 양악 「국악가요」 뿌리내리기 활발」, 『경향신문』, 1992.8.23.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판소리 창자들 역시 판소리를 타 장르와 융합하는 실험을 하였다. 특히 서양악기를 반주 음악으로 삼아 판소리를 부르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는데, 해금과 플루트의 반주로 판소리를 연행한 안숙선[54], 재즈 뮤지션들의 반주 속에서 판소리를 선보인 성창순[55], 첼로 반주에 판소리를 연행한 박동진[56], 대중가요, 클래식, 국악을 혼합한 종합 뮤지컬 〈영고〉에 출연하여 판소리를 선보인 명창 신영희, 김정민[57] 등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판소리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명창들의 노력이었다.

이와 같은 명창들의 활동이 판소리 음악 자체의 변형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면 당시 젊은 소리꾼들은 판소리 음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용하는 실험을 하였다. 판소리 창자 최규연은 국악과 가요, 팝송의 접목을 기획하는 음악을 하여 주목을 받았고,[58] 국악인 박선미는 판소리와 서양 랩을 합친 「랩唱」이라는 이색 음반을 냈다.[59] 또한, 소리꾼 조주선은 양악 반주에 맞추어 판소리를 부르고, 판소리 랩을 하였다.[60]

하지만,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으로 새로움을 모색하는 시도가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마냥 곱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 「젊은 난장」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낀세대」라고 규정한다. 전통을 오롯이 계승하기엔 피가 너무 뜨거운 세대. 그러나 새로운 모색을 하기엔 대중이 갖는 국악의 이미지가 너무 고정되어 있는 세대. 너희들이 하는 건 국악도, 현대음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세대. 그들 스스로도 무엇이 국악의 발전인지 고민스러운 세대.[61]

---

54) 「사물놀이 리듬에 재즈를 싣는다」, 『한겨레』, 1994.12.22.
55) 「판소리 인간문화재 성창순 씨 「재즈와의 만남」 무대 시도」, 『동아일보』, 1995.9.5.
56) 「洋樂 위주 「광복절 음악회」」, 『동아일보』, 1995.8.19.
57) 「한국적 뮤지컬 표방 '영고' 무대에」, 『한겨레』, 1994.10.15.
58) 「'실험적 판소리'에 도전 최규연 '소리꾼 3대'의'국악 신세계'」, 『경향신문』, 1998.5.15.
59) 「판소리—서양랩 합친 「랩唱」 나와 「국악의해」 이색음반 발표 國樂人 박선미 양」, 『동아일보』, 1994.6.8.
60) 「해금은 재즈를 만나고 판소리는 랩과 입맞추고 "전통 벗고 자유 입겠다"」, 『경향신문』, 1997.8.8.
61) 앞의 기사, 『경향신문』, 1997.8.8.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팝송을 들으며 자란 이들에게 판소리 음악을 자유롭게 비트는 것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의식 속에는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을 대중에게 가까이, 그리고 세계 속에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한 열망이 있었다. 이러한 국악인들의 열망과 실천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보다 본격화되었고,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더욱 가시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3) 2000-2010년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과 본격화된 판소리 세계화 작업

2000년대는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판소리의 가치가 어느 시대보다 조명되던 때였다. 전통음악의 자장 안에서 세계화를 모색하던 판소리가 자신만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대중화, 세계화의 중심에 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소리 세계화를 키워드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 시기에 나왔고,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가 증가한 것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62]

판소리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 그리고 재창조와 관련된 사회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게 하였다는 점에서 판소리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01년에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판소리 중심의 세계화를 추구한 행사가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으로 인해 증폭된 판소리 세계화의 주요 활동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2001년 시작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근간으로 세계 음악을

62) 판소리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2003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이를 기념한 3시간의 특별생방송이 KBS에 11월 10일 오후 1시 10분부터 편성되었다(「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판소리 3시간 특별 생방송」, 『국민일보』, 2003.11.10.). 그리고 판소리의 세계화 전략, 판소리 발전계획, 퓨전 판소리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각계에서 대두되었다(「판소리공연 세계화 전략 세워야」. 『동아일보』, 2003.11.11.; 윤미용, 「판소리도 '퓨전'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2003.11.19. 등).

한자리에서 즐기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대표축제이다.[63] 2001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판소리의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를 이끄는 기회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공존과 조화, 그리고 실험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였다.

제1회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막과 더불어 판소리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는 이 축제의 주요 전통이 판소리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64] 물론 축제의 정체성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긴 하였으나 2010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그 지향이 판소리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65]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통판소리는 물론 판소리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공연을 두루 마련하며 명실공히 판소리 '세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소리축제 속에는 사실 한국 최대의 판소리 축제가 숨어있다. 조통달 김일구 오정숙 박송희 성우향이 나서 유파별 판소리 전승의 역사를 보여주는 '판소리 명창명가'와 민소완 송순섭 남해성 정순임 김영자 등 최고 수준의 명창들이 나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은 모든 공연이 만원이다.
>
> 주운숙 모보경 천명희 정회석 등 명창의 길로 발돋움하는 중진 소리꾼들의 '득음의 길—완창발표회'에 올해는 젊은 소리꾼들의 창작의욕을 북돋는 '창작 판소리 사습대회'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
> 창작 오페라 '춘향'과 판소리 오페라 '진채선', 창극 '심청'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의 다양한 양상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27-29일 공연된 '춘향'은 서양음악 기법으로 작곡됐지만, 창작 오페라는 재미없다는 통념을 깨면서 2000여석의 모악당을 연일 관람객으로 가득 채웠다.
>
> 어린이 창극 '다시 만난 토끼와 자라'와 일본 호노보노 극단의 인형극 '까악까악', 전북어린이오케스트라 연주회, 놀이패마루의 '개똥아 놀자' 등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축제도 또 하나의 독립된 축제로 손색이 없다.[66]

'판소리 명창명가',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은 전통판소리를 보여주는 프로

63)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orifestival.com/).
64) 「세계인들과 판소리 전승방안 모색」, 『전북일보』, 2001.10.14.
65) "이날 밝혀진 소리축제에서의 '소리'의 정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인 판소리의 소리에 기반, 음악 양식적으로는 소리의 일반적 의미인 사운드보다는 인간의 목소리에 중심을 두겠다"고 했다"(박원기, 「[전주소리축제]'지향점'과 '개념' 명확히 정의」, 『뉴시스』, 2010.12.9.).
66) 서동철, 「세계화 가능성 보인 '전주 소리축제'」, 『서울신문』, 2003.9.30.

그램이었고, ‘창작 판소리 사습대회’, ‘창작 오페라’, ‘어린이 창극’ 등의 프로그램은 판소리의 대중화, 세계화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판소리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준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겠다.[67]

(2) 해외 명작의 판소리화, 창극화

2000년대 이후는 창작판소리가 그 어느 시기에 비해 활발하게 공연되던 때였다.[68] 김성환은 2000년대 초반 짧은 기간에 20여 편 이상의 창작판소리가 만들어지고 불렸다고 하며, 이는 앞선 시기부터 이어진 국악계 전반, 특히 대중매체와 국악 축제 등을 통한 대중화 전략이 2000년대 신세대 소리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창작을 추동케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69]

주목할 것은 2000-2010년대에는 다양한 창작판소리의 산출과정 속에서 해외 작품을 수준 높은 창작판소리로 공연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자람의 작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레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들〉,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을 판소리로 꾸민 〈사천가〉와 〈억척가〉가 그것이다.[70] 이외에도 이자람은 마르케스의 단편소설 〈이방인의 노래〉, 헤밍웨이의 중편소설인

67)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관련된 연구로 허문경,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지역문화콘텐츠 만들기」,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8; 서영민,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예술공연에 관한 연구: 2014년-2019년 공연내용을 중심으로」,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2020; 이덕영, 「지역축제 비교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유네스코 등재 유산 관련 문화예술 축제를 중심으로」, 한세대 석사학위논문, 2008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판소리의 대중화, 세계화의 성과와 관련한 정밀한 분석은 현재 제출되지 않았기에, 후고를 통해 진행해보고자 한다.

68) 김연은 창작판소리의 발전과정을 1980년대부터 2007년 논문 제출 당시까지로 정리하며, 2000년대 이후를 창작판소리의 부흥기로 정리한 바 있다. 김연, 「창작판소리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24, 판소리학회, 2007, 37-76면.

69) 김성환, 「21세기 창작판소리의 성과와 과제」, 『한국전통문화연구』 14,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212-219면.

70) 이자람의 작업에 대한 소개 및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바, 본고에서 이를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대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혜진(2015), 앞의 글; 김연수,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이자람의 판소리: 『사천의 선인』 비교」, 『독일문학』 56(2), 한국독어독문학회, 2015, 153-179면; 김향, 「창작 판소리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현대적 의미—이자람의 〈사천가〉와 〈억척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9, 판소리학회, 2015, 97-142면; 김산효, 「전통과 창작의 사이에서—이자람의 ‘사천가’—」, 『국악원논문집』 26, 국립국악원, 2012, 81-95면 등.

〈노인과 바다〉를 각각 동명의 창작판소리로 제작해 무대에 올렸다.[71]

이자람 이외에도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판소리로 만든 타루의 〈판소리 햄릿프로젝트〉(2014)[72], 허먼 멜빌의 소설 〈필경사 바틀비〉를 판소리극으로 만든 박인혜의 판소리극 〈필경사 바틀비〉(2016)[73],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판소리로 부른 정지혜의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 앨리스뎐〉(2017)[74],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를 판소리화한 박인혜의 〈판소리 오셀로〉(2019)[75] 등이 있었다.

판소리 분야에서만 해외 작품을 올린 것은 아니다.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작품 대상 창극도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무대화되었다. 국립창극단은 2009년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였는데, '창극 세계화'라는 가치가 강조되었다.

>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이 전통 창극의 어법에 담겨 2월 7-15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다. 중세 이탈리아 베로나를 무대로 원수지간인 몬테규—캐플릿가 출신의 남녀가 벌이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우리 전통 무대로 옷을 갈아입었다. 전라도 남원 귀족 최불립의 딸 주리와 경상도 함양 귀족 문태규의 아들 로묘의 슬픈 10대 연애담이다. (…) 로묘 역을 맡은 1년차 신입 단원 임현빈(32)씨는 "창극이 세계화로 가는 첫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거들었다. "〈춘향전〉 〈심청전〉 같은 전통 소리 다섯바탕도 좋지만, 이번 작품의 경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건 우리도 아는 건데 한국에도 있었구나' 하고 놀랄 겁니다. 그런 게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76]

창극을 향한 세계화의 요청은 이미 80년대부터 있었고, 국립창극단은 다양한 시도를 하며 창극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고민을 해왔다.[77] 창극

71) 「파격 1인극으로 돌아온 이자람 판소리 '이방인의 노래'」, 『연합뉴스』, 2020.6.23.; 「[공연 소식] 소리꾼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연합뉴스』, 2021.6.23.
72)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걸쭉한 판소리로 풀어낸 햄릿 스토리」, 『한경라이프』, 2014.3.11.
73) 「허먼 멜빌 소설 '필경사 바틀비', 판소리극으로」, 『서울경제』, 2016.8.22.
74) 「제2회 바닥소리극 페스티벌 '바닥소리 창창하다!' 오는 16일부터 공연」, 『뉴스컬쳐』, 2017.6.7.
75)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재해석한 '판소리 오셀로' 공연」, 『시사매거진』, 2019.8.21.
76) 김경호, 「판소리 '로미오와 줄리엣' 얼쑤-」, 『한겨레』, 2009.1.27.
77) 국립창극단의 역사와 공연연보 및 주요 작품에 대한 것은 최혜진, 「국립창극단사」, 『국립극장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김미도는 '창극 혁명의 시발점'이라 평가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창극이 세계화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기대를 받았다.[78]

이후 국립창극단은 창극 〈메디아〉(2013), 〈코카서스의 백묵원〉(2015), 〈오르페오전〉(2016), 〈트로이의 여인들〉(2016), 〈패왕별희〉(2019) 등 해외 명작을 창극화하는 시도를 꾸준히 하였다.[79] 뿐만 아니라 해외 연출가를 섭외하여 기존의 무대를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2011년의 〈수궁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80] 이와 같은 국립창극단의 작업은 창극의 지평을 넓혀 세계 무대로 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81]

(3) 소리꾼들의 다양한 해외 활동

2000-2010년대는 소리꾼들의 해외 활동이 상당히 늘어난 시기였다. 김희선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한국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은 주로 해외 거주 한인 위문, 민간외교, 국가외교 및 수교 등 교류 차원의 공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요청과 열망이 맞물리며 '국악의 세계화', '국악한류' 등을 모토로 기존과는 다른 다변화된 해외국악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82]

이 시기 판소리의 해외 공연 역시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본고에서는 그 양상의 몇 가지를 신문기사를 토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명창의 공연이다. 전통판소리의 면모를 보여주는 해외 공연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주목을 받았다.

70년사』 역사편, 국립중앙극장, 2020, 157-261면 참고.

78) 김종호, 「〈오후여담〉 창극 세계화」, 『문화일보』, 2009.12.3.

79) 국립극장, 「국립극장 공연목록」, 『국립극장 7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극장, 2020, 7-91면 참고.

80) 신세미, 「동서양의 만남 '수궁가' 재탄생/'창극 세계화' 첫 작품 선정」, 『문화일보』, 2011.2.16.

81) 이후 국립창극단에는 해외 연출가가 참여한 공연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안드세이 서반이 연출한 〈다른 춘향〉(2014), 옹켕센 연출의 〈트로이의 여인들〉(2016), 우상궈 연출의 〈패왕별희〉(2019)가 그 예이다.

82)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7, 한국공연문화학회, 2013, 158면.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일시에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데 제가 더 감격스러웠어요. 앙코르 요청을 받고 다시 무대에 섰는데, 김청만씨가 다섯 시간 넘게 소리 한 사람한테 무슨 앙코르냐고 그래서 멈출 수 있었지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 페스티벌에서 5시간 30분 동안 〈춘향가〉를 완창한 명창 안숙선(安淑善.54) 씨. 남들은 여름휴가 갈 시기에 소리 행장을 꾸리느라 바쁘다. 오는 9일 밤 9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600석 야외무대)의 판소리 〈흥보가〉 완창에 이어 17일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춘향가〉 완창 무대를 갖기 때문이다.

"지난번 뉴욕 공연에서 영어 자막을 곁들였더니 외국인들도 우리 판소리가 갖고 있는 예술성과 의미를 이해하더군요. 이번 에든버러 공연은 개런티를 받고 공식 프로그램에 초청받은 만큼 판소리를 세계에 선보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요."[83]

미국 뉴욕 링컨센터 페스티벌에서 안숙선은 〈춘향가〉 완창 공연을 하였고, 이후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도 역시 전통판소리 〈춘향가〉를 선보였다. 무엇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경우는 개런티를 받은 공식 초청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의 교류, 재외국민을 위한 공연 차원이 아닌 '판소리' 자체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선[84]은 프랑스 파리에서 1997년부터 시작된 '상상축제'[85]를 소개하며, 2001년 '판소리의 밤'을 제목으로 〈수궁가〉와 〈심청가〉의 완창이 밤새 공연되었고, 이 공연은 프랑스의 국영라디오 채널인 프랑스 뮤직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고 하였다.

창작판소리의 해외 공연도 있었다. 특히 이자람의 해외 공연이 이 시기 매우 중요한 판소리 세계화의 성과였다. 이자람은 〈사천가〉로 2010년 폴란드 콘탁국제연극제에 초청돼 최고여배우상을 탔고, 이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 한미페스티벌과 시카고 월드뮤직페스티벌, 프랑스 민중극장과 파리시립극장 등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었다.[86]

판소리의 해외 버스킹 활동도 있었다. 국립창극단 단원 박성환과 소리꾼

83) 「뉴욕이어 英 에든버러서 춘향가 완창하는 안숙선」, 『세계일보』, 2003.8.6.
84) 김희선, 앞의 글, 2013, 158면.
85) 상상축제는 파리 세계 문화의 집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1997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한다. 김희선, 같은 글, 2013, 176면.]
86) 「[공연]"뮤지컬에 '판소리의 날개' 달거예요"」, 『동아일보』, 2010.6.24.

염경애 등이 2003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악인들 최초로 버스킹 공연을 시도하였고,[87] 2015년에는 국악 아티스트 그룹 '국밥'이 유럽에서 버스킹을 하였다. 국밥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가야금, 비파, 판소리, 무용 등을 전공한 5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다. 이들은 한류문화인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10개 도시를 다니며 버스킹을 하였고[88], 2016년에는 미국에서도 두 번째 도전의 버스킹을 하였다.[89]

또한, EBS 프로그램 〈청춘! 세계 도전기〉(2015.3.5.-2016.2.27.)의 2015년 8월 6일 방송에서 소리꾼 김희재가 거리공연 축제가 열린 영국 런던을 찾아 판소리 버스킹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90] 그리고 2018년 KBS 프로그램 〈형님들의 현장학습〉(2018.10.2.-2018.10.16.)은 명창 왕기철이 피렌체에서 판소리 버스킹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국악을 전공한 젊은이들의 버스킹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1] 2000년대 이후 해외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영상콘텐츠가 다양해진 환경에서 판소리의 세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식과 기회 역시 많아진 것이다.

기실 2000년대는 전통음악의 자장에서가 아닌 '판소리' 자체의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적극적으로 요청되던 때였다. 점차 발전하는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활발함,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국경을 넘는 교류가 더욱 자유로워진 것도 '세계화'를 가능케 하는 요소였다.

판소리 대회가 유럽에서 열리고[92], 이를 바탕으로 판소리 실기를 배우며

87) 전정희, 「"해외 거리공연으로 국악 인식 바꿀것"… 佛서 첫 시도 이정주씨」, 『국민일보』, 2003.2.2.; 류혜인,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소리: 판소리, 프랑스를 매료시키다」, 『미르』 276, 2013 1월호.

88) 「낯선 유럽 거리를 흥겨운 국악 가락으로 채운다」, 『세계일보』, 2015.1.23.

89) 이들의 버스킹 경험과 관련된 인터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국악 버스킹 '국밥'〉(https://www.youtube.com/watch?v=gkc3oXQIV5Y 검색일 2022.9.14.)

90) 「우리 판소리, 런던에 울려퍼지다」, 『EBS 청춘! 세계 도전기』, 2015.8.6. 방송.

91) 〈아리랑스쿨〉(https://www.youtube.com/c/arirangschool 검색일 2022.9.14.)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유럽에서 국악을 버스킹하는 다양한 경험을 영상으로 올렸고, 전주MBC에서는 '국악 세계화 프로젝트—청춘 시나위' 2부작을 기획하여 방송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신진원 부산국립국악원 단원, 김동규 한예종 학생, 조예영 한예종 졸업생, 김기현 중앙대 학생이 참여해 쿠바 현지 음악을 배우며 국악과 비교해보고 현지인들과 함께 거리공연도 펼치는 음악 기행을 콘셉트로 하였다.(「전주MBC TV '국악 세계화 프로젝트—청춘 시나위'」, 『전북일보』, 2015.12.8.)

92) 「프랑스서 유러피언 대상 판소리 경연대회 열린다」, 『연합뉴스』, 2013.11.8.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상[93] 등은 21세기 판소리가 진정으로 세계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판소리 세계화의 향후 과제 제언

지금까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판소리 세계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향후 고려해야 할 판소리 세계화의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간 판소리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및 실천적 방안은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다. 정병헌[94]은 ① 원형의 보존과 전승, ② 체계적 관리, ③ 자율적 활용의 측면에서 상세히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고, 최동현[95]은 ① 북한 지역에도 판소리를 전파하는 방식을 통한 세계화의 지향, ② 판소리 사설의 번역을 통한 소개와 공연, ③ 볼거리를 갖춘 창극의 활용, ④ 다양한 크로스 오버의 시도, ⑤ 해외동포의 세계화 거점 활용, ⑥ 판소리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주장하였다. 최근 최혜진[96]은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략으로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소리 공연 네트워킹, ② 한국문화원의 장기지원을 통한 교육 네트워킹, ③ 학술교류와 올바른 다국어 번역을 위한 연구자 네트워킹, ④ 디지털 정보화와 온라인 소통을 위한 정책과 홍보 네크워킹을 말하였다.

본고는 선학들이 제시한 과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중요함에 깊이 공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미디어의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판소리 콘텐츠가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더불어 판소리 창자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향후 판소리 세계화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대는 뉴미디어의 시대로 각종 디지털 단말기로

93) 정대하, 「"귀명창 많은 남도에서 유럽 젊은이들이 '사랑가' 한판"」, 『한겨레』, 2016.3.3.
94) 정병헌, 앞의 글, 2004, 47-49면.
95) 최동현, 앞의 글, 2008, 264-268면.
96) 최혜진, 앞의 글, 2021, 64-69면.

문화를 향유하는 때다. 판소리는 실물 공간을 요구하는 공연예술로 존재하다가 1920년대 이후 음반과 방송의 발전과 더불어 미디어에도 수용되며 존재해왔다. 미디어가 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판소리 역시도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존재해야 한다.

〈이날치 밴드〉의 경우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대중적 인기를 크게 얻은 매체 역시 네이버 온스테이지, 유튜브라는 미디어다. 또한, 이들은 상당한 인기를 얻은 후,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자신들의 판소리 음악에 대한 홍보를 이어갔다.[97] 이런 점을 볼 때, 소리꾼들의 방송 출연은 비단 음악 프로그램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방송에서도 전통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MBN 〈조선판스타〉 (2021.08.14.-2021.10.30.), JTBC 〈풍류대장〉 (2021.09.28.-2021.12.21.) 등과 같이 국악 전공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판소리만을 주제로 기획되었던 전주MBC의 〈광대전〉[98]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뉴미디어의 시대인 만큼 판소리 콘텐츠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소리꾼 1, 고수 1의 전통판소리 공연 양식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소리판을 꾸리는 시도다. 〈이날치 밴드〉의 성과에서 보건대, 그들의 작업은 '리듬'이 중시되는 판소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춤출 수 있는 음악'이라는 면에서 매우 탁월하였다.[99] 물론 판소리는 '성음 놀이'라고 할 만큼 음악적 완성도와 깊이 있는 소리의 세계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왔다. 따라서 '듣

97) 〈이날치 밴드〉는 자신들의 인기에 힘입어 〈유퀴즈온더블럭〉 (2020.9.30. 방송), 〈라디오스타〉 (2021.2.3. 방송) 등에 출연하여 음악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작업을 보여주었다.

98) 〈광대전〉은 2012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14년 시즌 4편까지 방송되었으며 한국방송대상, MBC 작품콘테스트 대상, 이달의 PD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석권한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 시즌 5를 방송하였고, 올해 시즌 6이 방영될 예정으로 전주MBC 오리지널 유튜브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되며, 추후 서울 MBC와 국악방송에서도 방송된다. 김미진, 「"광대전(廣大戰), 더욱 새로워졌다" 전주MBC, 판소리 명창대접 '광대전' 더 젊게, 더 신선하게」, 『전북도민일보』, 2022.9.13.

99) 이동연은 〈이날치 밴드〉의 음악적 특이성으로 리듬의 반복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국 고유의 흥과 신명의 감각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이동연, 앞의 글, 2021, 62-66면

는 음악'으로서 판소리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각적 미디어가 주류를 이루는 현시대에서 '듣는 음악'만을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는 음악', '보는 예술'로서 판소리가 보여줄 장점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한편, 판소리 합창, 판소리 떼창과 같은 양식의 변화도 시도할 만하다. 최근 박인혜는 〈오버더떼창: 문전본풀이〉라는 공연을 통해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양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필자는 이 공연에서 보인 판소리 합창의 양상을 독창, 제창, 분창, 배경창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이와 같은 양상이 판소리의 이면 및 '소리'의 다채로움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가창 방식으로 대중에게 판소리 창에 대한 집중과 흥미를 배가하였다고 말하였다.[100] 판소리 음악의 수준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에게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양식의 다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판소리가 서사 즉,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영상 미디어 혹은 미디어아트의 기술 요소를 활용하는 공연도 시도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2019년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웹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은 김탁환의 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예』(북스피어, 2018)를 토대로 사설을 짜고, 작창하여 제작한 영상콘텐츠다. 김선현[101]에 따르면 이 콘텐츠는 조선 시대 실존 인물로 알려진 달문과 그에 대한 소설 〈광문자전〉을 바탕으로 창작된 현대소설을 다시 판소리 사설로 재구성하여 작창하고, 이를 모션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영상과 결합한 작품이다. 화면 전면에 이미지만 노출되고, 소리꾼이나 고수의 등장 없이 판소리만 삽입되는 형태이다. 또한, 처음부터 스트리밍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 3분 안팎의 영상에 영문자막을 넣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젊은 층에게도 판소리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영상 미디어, 그리고 짧은 플랫폼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나아가 세계인에게 보다 친밀하

100) 졸고, 「〈오버더떼창: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판소리 합창의 양상과 의미」, 『국악원논문집』 45, 국립국악원, 2022, 353-378면.
101) 김선현, 「판소리 영상 콘텐츠의 새로운 경향과 가능성」, 『판소리연구』 54, 판소리학회, 2022, 38-47면.

게 판소리를 선보이는 방식이다. 기술을 활용한 판소리 콘텐츠의 다채로운 개발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판소리 창자들이 자신들의 창의적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이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판소리가 세계화의 길을 간 그간의 궤적을 보면 소리꾼들은 물론 여러 음악가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80년대 김동진은 판소리를 서양음악의 어법 속에서 정립하려고 시도하였고, 90년대에는 여타의 음악 장르들과 판소리를 결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당시에는 이들의 활동을 '모험', '도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아'라며 이들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정적 시선보다는 긍정적 시선이 더 많아진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날치 밴드〉의 멤버 신유진의 스승인 박애리는 이들의 활동이 아니고서야 '수궁가'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소리임을 세계인들이 알았겠느냐고 하며 그들의 활동을 긍정하였고,[102] 국립창극단의 대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준수와 유태평양의 경우도 그들의 방송 활동에 대해 스승인 박금희 명창과 조통달 명창이 각각 응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103]

국악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전통음악 내부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고무적이며, 이와 같은 인식은 앞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여기서 나아가 이들의 창의적 기량이 펼쳐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더욱 창의적이고 새로운 음악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판소리를 물론 국악을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다.[104] 예술인들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

102) 〈SBS 스페셜—'조선 아이돌' 이날치 범 내려온다 흥 올라온다〉 편, 2020.11.22.

103) 장혜선, 「국립창극단 김준수&유태평양, 21세기 소리꾼의 변증법」, 『객석』, 2022.9월호.

104) 현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 프로그램, 지역문화재단(경북,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대전, 포항 등)의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다수 있다. 최근 종로문화재단에서는 '청년국악인 창작국악경연대회'를 2021년부터 열기도 하였다. 김지혜는 전통예술분야의 정책사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산실(구 창작팩토리)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고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기회도 많아졌다고 하였다. 김지혜, 「한국과 일본의 전통음악분야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성과를 낸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창작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동일인에 대한 연속지원금지 등의 제한사항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 활동은 한 작품, 혹은 1년 남짓의 기간을 보장받는 것만으로는 그 성과를 온전히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공연 지원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전통음악 예술인들이 고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 관계도 필요하다. 박현승[105]에 따르면 현재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에서 비정기적인 계약관계 혹은 계약조차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소수의 국공립예술단체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작품별로 작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은 꾸준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박현승, 김현철[106]은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가들은 겸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력의 단절, 혹은 예술 세계의 일탈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전통음악 분야의 예술가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는 지난 시대 판소리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돌이켜 볼 때, 지금 현세대의 창작자들이 하는 바로 그 작업이 자신들의 음악은 물론 전통음악을 위한 발전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 세대들이 이룬 이른바 판소리 세계화, 전통음악 세계화의 활동 과정과 결과물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도, 특정 예술가의 창의성만으로 도출될 것도 아닌, 지난 시기부터 전통음악을 출발로 한 창작자들의 작업이 적층되어 나타난 산물이다.

그렇다면, 향후 이처럼 창의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전통 음악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 기회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교육자 양성 비교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9.

105) 박현승, 「국악분야 종사자의 예술활동, 예술정책 및 예술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악원논문집』 35, 국립국악원, 2017, 80면.

106) 박현승・김현철, 「예술가의 가치와 만족: 공연예술 종사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예술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30,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735면.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07]

4. 나가며

본 연구는 1980-2010년대 판소리 세계화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향후 판소리 세계화의 과제를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 그간 판소리 세계화에 관한 연구는 2003년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판소리 세계화의 움직임을 가져온 주요 사건 혹은 계기로 1990년대 후반의 IMF가 가져온 경제 위기, 2003년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는 좀 더 이른 시기부터 판소리 세계화의 과정을 짚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지난시기의 신문자료를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1980년대부터 판소리 세계화의 흐름을 논의하였다.

본고는 1980년대 있었던 '88서울올림픽'이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발하였다고 보고, 이 시기 판소리 역시 전통문화의 자장 아래에서 세계화의 필요성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 당대의 주요 활동으로 ① 조선일보의 〈국악대공연〉 프로그램 개최와 '문화재보호협회'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기획, ② 신창악 운동 시도 및 창극의 세계화에 관한 요청을 확인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부가 주창한 '세계화'의 의제 속에서 사회 전 분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전통음악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시기 판소리와 관련하여서는 ① 판소리 사설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요구와 시작, ② 1994년 〈국악의 해〉 선포가 가져온 판소리 공연 및 관련 음반과 서적의 대중적 보급, ③ 판소리와 서양음악, 대중음악과의

107) 그간 소리꾼들을 위해 지원된 여러 제도의 현황 및 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현 원고는 지금까지 판소리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이것의 성과를 짚어보는 것에 중점을 둔 만큼 소리꾼을 위한 제도 측면의 논의는 다른 지면에서 꼼꼼히 조사 검토하여 진행하겠다.

적극적인 교류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판소리 세계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판소리' 자체의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된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 주요한 활동 및 성과로 ① 2001년 시작된 '전주세계소리축제', ② 해외 명작의 판소리화, 창극화 작업, ③ 소리꾼들의 다양한 해외 활동을 짚었다.

본고는 끝으로 판소리가 세계화의 길을 간 일련의 전개 과정을 통해 향후 판소리 세계화로 고려해야 할 지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는 미디어를 통한 판소리 홍보 및 공연 기회의 확장과 판소리 콘텐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판소리 창자들의 창의적 기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및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단행본, 논문〉

국립극장, 「국립극장 공연목록」, 『국립극장 7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극장, 2020.
김기형, 「판소리경연대회와 축제」, 『구비문학연구』 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동진, 「한국 정신음악 신창악 연구」, 『음악평론』 13, 한국음악평론가협회, 2007.
김문환, 「전통문화예술의 세계화 대응방안」, 『국악원논문집』 3, 국립국악원, 1991.
김보람, 「1980년대 국악가요의 탄생과 경향 분석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17.
김산효, 「전통과 창작의 사이에서 -이자람의 '사천가'」, 『국악원논문집』 26, 국립국악원, 2012.
김선현, 「판소리 영상 콘텐츠의 새로운 경향과 가능성」, 『판소리연구』 54, 판소리학회, 2022.
김성환, 「21세기 창작판소리의 성과와 과제」, 『한국전통문화연구』 14,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김수중, 「춘향과 심청의 축제적 성격 고찰」,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문학회, 2006.
김 연, 「창작판소리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24, 판소리학회, 2007.
김연수,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이자람의 판소리: 『사천의 선인』 비교」, 『독일문학』 56(2), 한국독어독문학회, 2015.
김영만, 「판소리의 국가 문화브랜드화 전략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3,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09.
김영주, 「〈이날치 밴드 수궁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예술연구』 33,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김은정, 「퓨전國樂의 시대적 樣相과 産業性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익두, 「판소리 세계화의 기본 전략」,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김춘미, 「세계화 담론과 한국음악의 선택」, 『정신문화연구』 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김 향, 「창작 판소리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현대적 의미—이자람의 〈사천가〉와 〈억척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9, 판소리학회, 2015.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담론과 월드뮤직화」, 『음악과 문화』 20, 세계음악학회, 2009.
_____, 「국악의 세계화—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7, 한국공연문화학회, 2013.
노복순, 「공연예술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고—〈2017전주세계소리축제〉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7,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류혜인,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소리: 판소리, 프랑스를 매료시키다」, 『미르』 276, 2013년 1월호.
박현승, 「국악분야 종사자의 예술활동, 예술정책 및 예술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악원논문집』 35, 국립국악원, 2017.
박현승・김현철, 「예술가의 가치와 만족: 공연예술 종사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예술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30, 2017.
서영민,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예술공연에 관한 연구: 2014년-2019년 공연내용을 중심으로」,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2020.
서종문, 「세계화와 판소리의 대응: 보성소리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1, 판소리학회, 2006.
손현정, 「한국 대중음악에서 나타나는 전통음악의 단계별 수용과정 연구—1970, 8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5.

송소라, 「〈오버더떼창: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판소리 합창의 양상과 의미」, 『국악원논문집』 45, 국립국악원, 2022.
안지영, 「김동진의 신창악 가극 연구—〈심청전〉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6.
양민정, 「한국어 문화교육과 판소리의 세계화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오명호,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환과 미래』, 박영사, 2020.
이덕영, 「지역축제 비교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유네스코 등재 유산 관련 문화예술 축제를 중심으로」, 한세대 석사학위논문, 2008.
이동연, 「예술한류의 형성과 문화정체성」,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이명현, 「판소리의 탈맥락화와 문화혼종: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1.
임형택, 「'이날치' 수궁가와 문화콘텐츠 이상의 문학적 가치」, 『인문콘텐츠』 60, 인문콘텐츠학회, 2021.
_____, 「'이날치'의 고전 현재화와 그 참여문화의 스토리텔링」, 『온지논총』 68, 온지학회, 2021.
장미영, 「판소리의 현대화를 위한 번역 현황과 방향」, 『비평문학』 36, 한국비평문학회, 2010.
장윤희, 「창작 판소리의 변화양상과 판소리 세계화의 담론」, 『한국음악연구』 57, 한국음악학회, 2015.
장혜선, 「국립창극단 김준수&유태평양 21세기 소리꾼의 변증법」, 『객석』, 2022.9월호.
정병헌, 「판소리의 세계화와 세계무형문화유산 선정」,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최동현, 「판소리의 세계화에 관하여—가능성을 위한 시론」, 『판소리연구』 26, 판소리학회, 2008.
최혜진, 「판소리의 세계화와 영어 콘텐츠화의 문제」, 『공연문화연구』 9, 한국공연문화학회, 2004.
_____, 「이자람의 억척가를 통해 본 판소리 세계화」,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0, 건국대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5.
_____, 「국립창극단사」, 『국립극장 70년사』 역사편, 국립중앙극장, 2020.
_____, 「판소리 세계화의 현황과 미래 전략」, 『구비문학연구』 62, 한국구비문학회, 2021.
한명희・송혜진・윤중강, 『우리국악 100년』, 현암사, 2001.
허문경,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지역문화콘텐츠 만들기」,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8.
현택수, 「문화의 세계화 담론과 문화정체성」, 『문화정책논총』 13,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01.

〈신문 및 방송 자료〉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한국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전북중앙』, 『뉴시스』, 『머니투데이』, 『한경라이프』, 『뉴스컬쳐』, 『시사매거진』, 『예술경영』, 『연합뉴스』, 『뉴스 1』, 『스포츠월드』 등.
「'조선 아이돌' 이날치 범 내려온다 흥 올라온다」 편, 『SBS 스페셜』, 2020.11.22.
「우리 판소리, 런던에 울려퍼지다」, 『EBS 청춘! 세계 도전기』, 2015.8.6.

〈인터넷 자료〉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s://www.sorifestival.com/ (검색일 2022.9.20.)
「국악 버스킹 '국밥'」, 『DKTV(DKNET 공식 채널)』, 2016.8.2. https://www.youtube.com/watch?v=gkc3oXQIV5Y (검색일 2022.9.14.)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Future Challenges of Pansori Globalization in the 1980s and 2010s

Song, So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pansori globalization in the 1980s and 2010s, and to examine the tasks of pansori globaliz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i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the major events and practical activities that led to the globalization of pansori based on newspaper articles of the time, and based on this, pointed out the necessary tasks in the future.

First,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88 Seoul Olympics' in the 1980s triggered national interest in the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explained that Pansori was also given the need for globaliz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culture. In addition, the main activities of the time were ① to hold the Chosun Ilbo's Gugak Performance, ② to plan traditional cultural program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ssociation, and ③ to attempt the Sinchangak Movement and to globalize Changgeuk.

Next, in the 1990s, the movement of globalization was actively promoted in all areas of society under the governmen's 'globalization' stance, and traditional music also showed corresponding movements. Regarding pansori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activities such as ① the start of pansori's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② the popularization of pansori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Year of Gugak" in 1994, and ③ the active exchange of pansori with Western and popular music. This study saw that these movements became the cornerstone of pansori globalization in earnest in the 21st century.

As is well known, the 21st century was a time when the movement toward globalization of Pansori itself became visible as Pansori was register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3. In this study, the main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is period were ① Jeonju World Sound Festival, which began in 2001,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② Pansori and Changgeukization work of overseas masterpieces, and ③ various overseas activities of pansori singers.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ree points in the various aspects of modern pansori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pansori globalization in the future through a series of developments in which pansori went on the path of globalization. The first is the expansion of pansori performance opportunities through the media and the pursuit of diversification of pansori contents. And nex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Pansori singers are viewed as "artists" rather than "Korean traditional musicians". Furthermore, a system for pansori singers to actively engage in creative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supported.

Keywords: pansori, globalization, 88 Seoul Olympics, "the Year of Gugak" in 1994, pansori's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Jeonju World Sound Festival, Changgeuk,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접수일: 2022.09.22.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25.